

“雨... 雨...” 하늘만 쳐다보는 광주시 “이러다 제한급수 하나”... 시민 ‘불안’

광주·전남 강수량 평년의 60%
물폭탄도 태풍도 모두 비껴가
겨울에도 눈 많이 내리지 않을 듯
시, “물 절약” 호소 문자 메시지

광주시는 요즘 “내년 3월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한급수를 해야한다”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갑작스런 ‘제한급수’ 메시지를 받아 든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제한급수는 상수도 시설이 열악하고, 개발이 더딘 일부 국가나 섬 지역에서나 있는 현상에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뭄하면 떠오르는 도심 내 가로수 고사나 하천 물이 바짝 마르는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일상에서도 ‘심각한 가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상당수 시민은 올 들어 전국적으로 ‘가뭄’이라는 단어는 커녕 오히려 ‘물 난리 피해’ 등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던 터라 제한급수를 운운하는 광주시의 메시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김현숙(43·광주시 북구)씨는 “거주하는 인근 석곡천에 물이 여전히 흐르고, 무등산 자락이나 도심 내 가로수도 푸르고, 단풍도 곱게 물들었는데 갑자기 제한급수라는 말이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뭄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걱정에, 광주시는 현재로서는 물 절약과 함께 큰 비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광주를 덮친 이례적인 가뭄 원인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다.

◇비 내리지 않는 광주·전남=올해 1~10월 기준 광주·전남에는 평균 강수량의 60% 안팎의 비가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전남에 내린 강수량은 총 786.1mm로, 평년(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강수량(1304.8mm) 대비 60.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광주·전남의 강수량이 제일 낮은 해를 기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관측 이래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강수량 차이도 2번째로 컸다.

기상청은 일단 올 여름 장마기간 중부지방에 유례 없는 물폭탄이 쏟아진 반면 광주·전남에는 정체 전선이 머무르지 않은 탓에 비가 부족했던 것을



9일 오후 화순군 사평면 주산리 주암호. 유례 없는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든 탓에 바닥을 드러낸 상류의 수풀마저 바싹 마른 상태로 시들어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가뭄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평년 장마기간 광주·전남에는 평균 338.7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엔 207.1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올해 장마철 남부 가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컸다. 기상청은 저기압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린데다, 장마 중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바람에 남부지방으로 강수대가 내려오지 못하고 장마전선도 소강상태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올 가을 폭풍은 태풍 경로도 변화=올해는 가뭄 해갈에 도움을 주는 태풍들도 모두 광주·전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태풍은 대부분 일본쪽으로 빠지거나, 제주도나 광주·전남, 경상도 등에 강풍과 비 피해 등을 입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유독 광주·전남을 비껴간 것이다.

막대한 피해 탓에 태풍의 접근을 꺼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광주시는 태풍이 품고 있는 풍

부한 비를 내심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이 23개로 평년(25.1개)보다 적은데다, 광주에 영향을 준 태풍도 거의 없었다.

올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광주·전남에 내린 비는 가뭄 해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264.3mm에 그쳤다.

올해 태풍의 경우 경로 자체가 남부지방을 벗어나 동쪽으로 치우치거나 아예 서쪽 아래인 대만을 지나 중국쪽으로 진입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부산과 일본 등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기상변화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태풍 경로가 굳어질 경우 태풍 피해에선 벗어날 수 있겠지만, 강수량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과 우려가 나온다.

◇겨울은 더 심각한 가뭄=내년 봄 농사 망칠 수도=기상청은 “올 겨울 많은 양의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광주·전남의 가뭄 현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겨울철은 전반적으로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데, 내년 1월께 찬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일시적 추위는 찾아오겠지만 강수량은 평년(21~58mm)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내년 2월에도 변질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은 날이 많겠으며, 가뭄 해갈에 영향을 미치는 눈도 영동지방으로 치우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겨울시즌 자체가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인 만큼 지금보다 가뭄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내년 봄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걱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 도심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긴 힘들겠지만 3개월 뒤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물을 아껴 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문화재 인근 보존구역 조정
도심 200m·녹지는 500m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해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가 위치한 인근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사·도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200m나 500m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고,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만든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 문화재 인근 500m를 모두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녹지지역 500m를 기준으로 삼고, 지역에 맞게 세부적인 논의를 더해 지자체 조례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과 제주는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은 빽빽한 도심과 문화유산이 섞여 있어 100m·100m, 제주는 세계문화유산 면적이 넓어 500m·500m 보존지역이 적용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0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문화재 인근 500m 이내 건축행위에 대해서 전부 문화재청의 영향검토를 받도록 했는데,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이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자체 조례를 찾아 논의하고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7차 유행, 광주·전남 3천명대 돌파 ▶2면

코로나 현황 업종들 ‘아 옛날이여’ ▶6면

신 팔도명물 - 김제 농민 자부심 자랑선살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2-2023

저나바마이행

남도이공

JEONNAM

전남여행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B
▶
f
@
남도여행길잡이
검색